

자율관리어업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평가위원회 개최 충남 태안 곰섬공동체 등 3개 공동체 사업계획 평가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위원회가 12월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려 태안 곰섬공동체 등 3개 공동체의 사업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가 지난 12월 21일 세종정부청사 4동 회의실에서 열렸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조일환 과장을 비롯한 평가위원들은 이날 △충남 태안 곰섬공동체 △충남 예산 예당내수면공동체 △전남 고흥 청석공동체 등 3개 공동체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는 선진등급 공동체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총 10억원(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내의 사업비를 지원해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반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제도로, 공동체의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특별사업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공동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토대로 심의대상 공동체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날 심의 받은 공동체에 대한 특별사업비 지원여부는 평가위원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해수부에서 최종 결정 후 지자체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평가위원회에서 곰섬공동체는 특별사업비가 지원되면 해삼 자연종묘 산란장, 중간종묘육성장, 성육장 등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해 지속적인 해삼 대량생산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사업 구상을 밝혔다. 또한 예당내수면공동체는 내수면어류 중간육성장을 마련하여 종묘방류 효과를 높이는 사업계획을, 청석공동체는 해조류 저온저장고를 건립해 미역과 다시마의 건조가공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자율관리어업 지역담당 컨설턴트 회의 2017년 활동실적 평가 및 활성화 방안 협의



전국의 지역담당 컨설턴트들이 12월 18일 대전에서 모여 그 동안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다.

한국수산업회는 지난 12월 18일 대전 유성구 레전드호텔에서 전국의 지역담당 컨설턴트 위원(21명) 및 한국수산업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하반기 컨설턴트 활동보고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컨설턴트들은 자율관리어업이 부진한 공동체는 대부분 지도자의 활동 및 리더십에 문제가 있

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추후 컨설턴트 활동은 공동체 위원장 및 간사 등의 리더십 함양에 보다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어촌 인력의 고령화로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문서관리, 활동일지 기재 등에 어려움 겪고 있는 만큼 자율관리어업 도우미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거제새우조망공동체, 우수공동체 상금 등으로 자원회복 위한 치어방류 행사 가져



거제새우조망공동체가 우수공동체 상금 등으로 자금을 마련, 12월 6일 치어방류 행사를 가졌다.

올해 유형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대회에서 어선어업 부문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거제새우조망공동체가 자체자금으로 자원회복을 위한 치어방류 행사를 가졌다.

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대회에서 받은 상금 일부와 거제시에서 받은 폐부자수거대금 등을 모은 500만원으로 10~15cm 감성돔 치어 1만마리를 구입해 지난 12월 6일 거제시 일운면 지선에 방류했다.

거제새우조망공동체는 지난해에도 일운면 지세포 해역에 7cm 가량의 참돔 치어 1만3,000마리를 살포하는 등 자원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익산내수면 자율관리공동체, 저소득층 지원 성금 기탁

전북 익산내수면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윤승례)는 11월 27일 익산시를 방문해 희망복지지원사업 저소득 지원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익산내수면공동체는 그동안 장애인 가정 난방유 지원, 자연생태계 복원과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목천포천에 봉어치어 3만마리를 방류하는 등 적극적

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서 윤승례 위원장은 “작은 성금이지만 익산시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뜻깊게 쓰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뜻을 모아 지속적인 기부 나눔과 봉사에 적극 실천”이라고 말했다.

자율관리어업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

우리 바다, 우리 수산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어장관리 활동



어장정소, 해적생물구제, 바위담이 등으로 수산자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자원조성 활동



체포제한 제한, 금어기 준수, 어획 능력 식각, 종자방류 등으로 자원을 관리해요.

경영개선 활동



공동어업장, 판매 방법 다양화, 가공품 개발로 공동체의 소득을 증가 시켜요.

질서유지 활동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공동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요.

2017년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 개최 올해 분쟁과제 추진실적 및 내년도 운영방안 협의



한국수산회는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 총괄협의회를 12월 15일 개최해 금년 한해 분쟁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한국수산회는 지난 12월 15일 서울 양재동 E타워 회의실에서 자율조정협의회 분쟁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자율관리어업협의회(위원장 김영규)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에 열린 상반기 자율조정협의회에서 선정된 '17년 신규과제 8건과 '16년도 미해결된 이월과제 4건 등 총 12건의 분쟁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 및 향후 자율조정협의회 운영방안 등을 협의했다.

올해 조정이 완료된 과제는 △전남 완도 노화 당산공동체와 노륙도 어업인간 양식어장 분쟁 △전남 완도 약산 화가 여동 어촌계간 매생이양식지 조업분쟁

등 2건이다.

이와 함께 분쟁당사자간들의 갈등해소 노력과 조업질서가 상당히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강원 고성 공현진연승협회와 가진어촌계간 조업분쟁 △경남 남해 대벽공동체 및 가진어촌계와 사천 삼천포잠수기어업공동체간 조업구역 분쟁 △경남 거제 새우조망어업과 통영 연안복합어업간 조업구역 분쟁 △경남 거제대구호망어업과 연안자망어업간 조업구역 분쟁 △경북 연안선망어업과 경남 근해소형선망어업간 어업분쟁 △인천 강화 젓새우잡이(일명 : 풍지배) 안강망어업자와 닻자망어업자간 조업분쟁 △충북 제천 내수면어업 조업

구역 중복에 따른 분쟁 △제주 서귀포시 월평어촌계 인가에 따른 강정어촌계와의 어장분할 분쟁 등 8건은 자체 종결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12월 현재 마무리되지 못한 분쟁과제 1건은 내년 초순까지 계속 조정을 추진해 합의를 도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수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조정협의회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총 73건의 신규 분쟁과제를 발굴, 이중 46건을 조정 완료함으로써 어촌사회의 갈등해소에 기여해 오고 있다.

다음은 올해 조정완료 된 분쟁과제 해소 내용이다.

있다며 제기한 양식어장 분쟁이다.

이에 한국수산회 분쟁조정위원들은 8차에 걸친 조정결과, 당산공동체와 노륙도 간의 지선수역에 전속 가두리 면허 1건을 이설기로 자체적인 합의를 마련, 자율조정합의서에 분쟁당사자들이 서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했다.

전남 완도 화가어동어촌계간 매생이 양식지 조업분쟁



분쟁조정위원들이 당사자들과 분쟁을 중재하고 있는 모습.

전래의 지주식 김 양식지를 외해로 이설하여 해조류 양식지로 대체 개발됨에 따라 오랫동안 유향지 갯벌로 방치되었던 수역이 새로운 소득품종인 지주식 매생이 양식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두 어촌계간 같은 지선의 매생이 양식지를 두고 수년간 지속돼 온 조업분쟁이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매생이 양식장 분쟁 수역의 양식어업권 3건(화가 1건, 여동 2건)을 취소함과 동시에 1건의 공동면허로 개발하기로 하고 양어촌계 지선경계선으로 지분을 설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마련, 서명함으로써 분쟁을 종결지었다.

전남 완도 노화 당산공동체와 노륙도 어업인간 양식어장 분쟁



분쟁당사자들이 자율조정합의서 서명 후 분쟁조정위원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완도 노화읍 당산리(당산공동체) 부속도서인 노륙도 마을은 섬 주변 해안선의 길이가 2.29km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수역의 지선 마을어장 및 전복양식장을 큰 마을인 당산공동체에서 독점하고

자율관리어업 성공사례전수 현장교육

충남 태안 방포공동체, 백미리공동체 방문 현장교육



성공사례 현장교육 기념촬영 모습.

성공한 공동체를 방문견학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자율관리공동체 활성화에 도모하는 성공사례전수 현장교육이 지난 11월 29~30일 이틀간 경기도 화성 백미리공동체에서 열렸다. 이날 방



방포공동체 회원들이 백미리공동체 가공공장을 견학하고 있다.

포공동체 회원 40여명은 백미리공동체 김호연 위원장과 이창미 사무장 등으로부터 조직관리 및 효율적인 어장관리 등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제반 교육을 받고 백미리공동체 주변시설을 견학했다.

2017년 자율관리어업 사업담당자 평가지원 교육 실시



자율관리어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및 관련단체 직원들이 12월 19일 대전에서 모여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월 19일 대전 유성구 레전드호텔에서 지자체, 한국수산회, 수협, 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자율관리어업 사업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자율관리어업 사

업담당자 평가지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자율관리어업 유형별 교육자료 설명과 함께 공동체 평가시스템에 대한 전산입력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수과원, 인공지능 활용한 바지락 치패 채묘기술 개발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는 서해안 갯벌 패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바지락 치패채묘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서해안 갯벌에 서식하는 바지락은 대부분 7월부터 9월까지 산란하고 조개모양의 치패로 성장하는데 약 1개월이 걸린다. 성장한 치패는 이후 갯벌 속으로 들어가 살아간다.

이번에 개발된 채묘기술은 치패가 가장 많은 여름철에 채묘기를 이용해 바지락 치패를 확보하는 기술이다. 그동안 국내 바지락 양식용 종패(씨조개)

는 서해안 갯벌 패류양식장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어린 바지락을 봄과 가을철에 잡아서 활용해 왔다.

지난 7~10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개발한 채묘기를 갯벌에 설치해 치패를 잡은 결과 채묘기를 설치하지 않은 일반 갯벌에 비해 개체수가 최대 69배 많았다고 수과원은 전했다.

수과원은 국내 바지락은 서해안의 대표적인 양식품종이지만, 매년 종패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채묘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 잠수기공동체, 3·4구 잠수기수협에서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교육



여수 잠수기자율관리공동체는 보다 내실있는 자율관리어업 추진을 위해 11월 21일 여수시에 위치한 제3·4구 잠수

기수협 회의실에서 공동체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실화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수산회 이용한 컨설턴트가 강사로 나서,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 자율관리어업 추진의 필요성, 평가시스템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한삼석 여수잠수기공동체 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율관리어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별기고

귀어귀촌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모색 필요

최근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몇년전까지 귀농 열풍을 조명하던 언론들도 최근에는 귀어에 대한 정보와 성공사례들을 수시로 보도하고 있다. 필자가 속해 있는 귀어귀촌종합센터에도 귀어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전화나 직접 방문하며 상담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귀어에 대한 열풍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다양한 귀어귀촌 정책을 내어놓으며 도시민의 어촌으로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시민의 어촌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귀어귀촌지원센터 개소를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귀어귀촌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어선어업, 양식어업, 유통가공업, 어촌비즈니스업(해양레저업, 어촌관광업, 음식점 운영, 숙박업 등) 등으로 자신의 전문성과 자본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어선어업은 소자본 투자로 자금회전율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귀어희망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고, 양식어업은 고수익률이 기대되어 젊은 층에 인기가 높다. 또 어촌관광 붐이 편승하여 펜션, 식당, 해양레저업과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수산물 유통·가공업도 귀어희망자들이 도전하고 있는 업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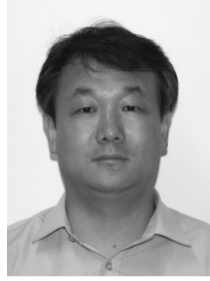
그런데 최근에는 귀어귀촌인들이 어촌사회로 다수 유입되면서 어업인들과 갈등을 빚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기존 어업인들은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잃지 않을까하는 우려 속에서 귀어귀촌인들에게 경계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문제들의 상당한 부분은 귀어귀촌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귀농어귀촌 활성화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을 보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어촌에 우수한 도시 인력을 유입시켜 어촌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어가인구는 2015년 현재 128,352명으로 2000년 251,349명에



송영택 한국어촌어향협회 귀어귀촌종합센터장

비해 51%나 줄어 들었다. 특히 어업인 중 60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5년 현재 44.0%로 2005년 28.5%와 비교할 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어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정부는 농산어촌 개발사업, 어촌6차산업화 등 다양한 어촌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역량있는 인력의 부족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귀어귀촌정책은 어촌의 입장에서 도시민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어촌으로 유입시켜 수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촌과 어업인에 대한 배려가 바탕이 되는 정책이다. 이에 기존 어업인들도 경계의 시선을 누그러트리고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수용하고 융합하여 어촌에서 새로운 사업을 함께 펼쳐나갈 것인가에 고민

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의 귀어귀촌 지원 정책은 크게 희망단계, 준비단계, 정착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업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장기간 멘토링을 해주는 창업어가 후견인제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 귀어귀촌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는 귀어닥터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이와 같이 현장 정착단계에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수용과 개입으로 귀어희망자들을 수용하여 어촌사회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기존 어촌주민이나 어업인들 입장에서도 어촌의 6차산업화와 귀어귀촌지원사업을 연결시키는 관심이 필요하다.

기존 어촌주민이나 어업인의 입장에서 1차 수산물 생산 위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도시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여 융합하여 제3의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파이를 키우는 필요한 인력이 그들인 것이다.

경험과 패기가 넘치는 우수한 인력들을 어촌으로 잘 유입시킨다면 어촌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완전양식 어린명태 15만마리 강원도 고성에서 ‘방류’

완전양식 인공2세대 어린명태 방류행사가 12월 15일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과 저도어장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방류행사에는 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 이양수 국회의원, 변성균 강원도 환동해본부장, 윤승근 고성군수, 김영문 고성군의회의장 등 관계자와 어업인 50여명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명태 자원회복을 위해 인공2세대 어린명태 15만마리가 방류됐다.

이번에 방류된 어린 명태는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한 명태완전양식기술을 통해 탄생한 인공 2세대로 육상 수조에서 약 10개월간 사육한 7~20cm의 치어이다.

해수부는 강원도와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2015년 인공 1세대 명태 1만5,000마리를 방류한 바 있으며 이후 명태완전양식을 통해 인공 1세대에게서 2세대 어린명태를 얻어 최



12월 15일 고성군 대진항과 저도어장 일원에서 완전양식 인공2세대 어린명태 방류 행사가 열린 가운데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등 관계자들이 명태 치어를 풀어놓고 있다.

초 방류 이후 2년 만인 지난 5월 10배에 달하는 15만마리의 어린 명태를 방류했고 이날 15만마리를 방류해 올해 총 30만마리의 명태 치어를 방류하게 됐다.

이번에 어린 명태가 방류되는 현내면 어로한계선 북측해역 일원은 해수

부가 지난 2015년부터 명태의 산란장·회유경로로 추정 지역 어업인과 협의의 거쳐 보호수면으로 지정했으며 여기서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해상에 방류한 명태는 어미명태로부터 확보한 유전자 정보 등을 활용해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에서 명태 완전양식기술을 통해 탄생한 인공 2세대로 육상 수조에서 약 10개월간 사육한 7~20cm의 치어 모습.

어획 혼획률에 따른 효과조사 및 추적·관찰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100만마리 방류를 목표로 인공양식 명태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은 “이번 명태 방류행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수산회, 명동에서 '어식백세 연말 특별행사' 개최



연말에도 수산물 소비촉진행사를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산회가 12월 13일 서울 명동에 개최한 행사 모습.

연말연시를 맞아 해양수산부와 수협, 대형유통업체, 생산자단체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한국수산회는 12월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어식백세 연말 특별

기획행사를 열어 고등어 등 제철수산물을 할인 판매했다. 7일간 진행되는 이번 기획행사에는 전국 주요 대형마트 등 총 1,317개 점포와 수협쇼핑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이 참가했다.

서울 명동 뉴스퀘어 앞 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과 수산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하여 평창올림픽 응원단(서포터스) 등의 축하 공연과 함께, 생선구이와 어묵 등 다양한 수산물을 맛보는 기회도 가졌다.

수산물 수출브랜드 'K-FISH', 중국에서 본격 마케팅

12월 20일 중국 상해서 K-FISH 브랜드 출시행사 개최

우리 수산물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케이 피시(K-FISH) 브랜드 출시행사' 해양수산부 주최, 한국수산회 주관으로 12월 20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됐다.

현재 K-FISH 적용 대상은 11개 품목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총 38개 국가에 상표권이 등록됐으며 러시아, 베트남 등 총 14개 국가에서도 상표 출원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해수부는 중국 시장에 우리 수산물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현지 유명 영유아용품 매장에 영유아용 스낵김을 입점시켜 판매하고, 북경 내 CGV 영화관에서 K-FISH 광고를 진행해 왔다.

이번 중국 상해에서는 현지 언론매체와 마케팅 관계자들을 초청해 K-FISH 브랜드와 상품을 소개하는 설명회 및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행사 이후에는 한국의 수출업체와 상해 현지 유통업체를 연계해 수출상담회도 가졌다.

'굴 산업 100년 미래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 해수부, 통영서 굴 산업 세미나 개최 ... 굴 산업 종사자 등 400여명 참석



12월 20일 해양수산부 주최로 통영 굴수협에서 열린 '굴 산업 육성 및 선진화 세미나'에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 양식 어민 등 400여명이 자리를 채웠다.

야한다." 경남 최고의 효과 수산업으로 성장한 굴 산업의 '100년 대계'를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설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12월 20일 경남도, 전남도, 굴수협과 공동으로 통영 굴수협에서 '굴 산업 육성 및 선진화

산업화 50년을 넘어선 굴 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전략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 해수부를 비롯해 관계기관 및 연구소, 연관 지자체, 굴 산업 종사자 등 400여명이 현장을 가득 채웠다.

1부에서는 국내 굴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을 토대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들이 제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KMI 김대영 수산업관측센터장은 굴 산업의 당면과제로 △이상수온 등 양식 환경 변화로 인한 원료 수급 차질 △노동력의 고령화와 인력 수급 불안 △위생 이

수에 지나치게 민감한 내수시장 △호불호가 극명한 굴 식품의 한계 △일본, 미국에 편중된 수출 시장 의존도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생산부터 소비 단계까지 철저한 위생 관리가 가능한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취향에 맞춘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한 소비층 확대를 들었다. 또 세계 각국의 소비트렌드 분석 및 제품 다변화, 국제식품안전부문 인증 확대를 통한 수출국 다변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부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굴 공급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방안과 안전한 굴 섭취방법 등에 대한 발표에 이어, 경상대학교 정우건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 업계, 지자체, 학계가 함께하는 종합 토론회가 진행됐다.

“남해안 굴 양식업, 이제 미래를 대비해 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공동체 탐방 / 군산 비응도 자율관리공동체

“새만금의 시작점, 비응도에 자율관리어업의 새 길을 연다”



심명수 군산 비응도 공동체 위원장



공동체 회원들과 함께 바다환경 정화활동



비저락 종패 살포모습. 비응도는 그동안 어선어업 위주에서 새꼬막 양식 등 복합어업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비응항 전경.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비응항 내에 부잔교를 설치했다.

하늘을 나는 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의 섬, 비응도는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아닌 섬이다. 비응도는 2006년 공동체를 결성했지만 새만금 개발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와 어업권 상실에 따른 어촌계의 분열로 자율관리어업 활동은 유명무실했다. 이름만 공동체일 뿐 예전에 해 온 그대로의 모습이였다.

하지만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심명수(52) 위원장이 IMF를 맞아 고향으로 돌아오며, 부친이 운영하던 어선어업을 이어받으면서 마을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2011년 심 위원장이 어촌계장으로 부임하면서 어장관리규약을 토대로 그동안 성행하던 불법어업을 금지하

고, 회원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것이 계기가 된 것이다.

여타 공동체보다 출범은 늦었지만 해양폐기물과 쓰레기 수거, 불법어구 자진 철거 등을 추진하면서 회원들의 의식도 점차 변모하기 시작했다. 삼각망 등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할 때는 주민들의 반발도 심했지만 점차 어획량이 증가에 따른 소득향상이 가시화되면서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동참하게 됐다.

비응도 공동체는 매월 연합복합어업 조업일수를 20일에서 18일로 단축하고, 연안자망도 현행 법령(1만2,000m)보다 작은 1만m로 설치를 제한했다. 연안조망의 그물코 크기도 30mm 이상으로 설

정하고 주꾸미, 꽃게, 광어, 키조개 등 TAC대상 품종의 생산량을 규제했다.

이와 함께 해안청소와 폐어구 수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회원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또 연간 4톤 이상의 불가사리와 해파리를 규제하고, 매월 4회에 걸쳐 해안가 청소를 실시했다.

이같은 지속적인 노력 덕택으로 새만금 인근 시군에서 가장 깨끗한 연안 바다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2005년부터 연속 3회에 걸쳐 모범공동체로 지정돼 육성사업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비응도는 예로부터 어선어업만을 주로 해왔으나 지난해 마을어장 90ha에 새꼬막 종패 36톤을 살포하는 등 패류양식

과 함께 서해안 특산품종인 해삼을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어촌계 부지에 해삼가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자체 생산된 패류의 브랜드사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꾀하고 있다.

“성공한 사람은 눈을 밝아 길을 만들지만, 실패한 사람은 그 눈이 녹기만을 기다린다”는 심 위원장은 아직은 미완의 섬, 비응도에 자율관리어업의 새 길을 내기 위해 74명의 회원들과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